

# 쉬운 말로 풀어쓴 말의 본질과 비밀

「언어학의 이해」 펴낸 金芳漢교수

국어 언어학계의 제1세대 학자로 평생을 언어학 연구에 바쳐온 金芳漢교수(서울대 언어학과·67)가 최근 초심자와 관심있는 일반 교양인을 위한 언어학 개론서 「언어학의 이해」(민음사)를 상재했다.

40여년에 걸친 연구활동을 통해 「언어학의 이해」 「일반언어학」 「역사-비교언어학」 「몽골어와 투구스어」 「한국어의 계통」 「어원론」 등 언어학 분야의 대표적 저작들을 펴내온 김교수가 그동안의 학문적 은축을 한데 집약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老年의 저서이기에 가능한 폭넓고 균형잡힌 시각 속에 언어학의 제반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설해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독자들이 지루해 하거나 딱딱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면서 언어학 특유의 논리와 체계를 이해시킨다는 점에서 이 책은 기왕에 나온 이 방면 개론서들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 전문성과 단편성의 한계 탈피한 개론서

“우선 읽어서 알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했습니다. 개론서나 통사야말로 학자의 최종적 저술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내 나름으로는 그동안 공부한 언어학 지식들을 정연한 체계와 학문적 엄밀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쓰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언어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는 어문계열 학생들을 비롯해 언어의 본질과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문과학도나 컴퓨터공학도, 그리고 나아가 일반교양인들이 언어학의 세계에 흥미를 갖고 접근하도록 하는 데 이 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교수는 기존의 언어학 개론서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단편적이었음을 또한 조심스레 지적하는데, 읽어서 알 수 있게끔 쉽게 풀어쓴 것이 지나친 전문성의 극복이라 하면, 이 책의 두번째 특징이라 할 포괄성은 단편성을 지양하는 시도여서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전통언어학과 현대언어학 이론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여러 이론을 두루 고려하여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언어학은 다른 어느 학문보다도 눈부시게 빠른 발전을 거듭하는 학문으로 현재에도 새로운 이론들이 연이어 개발되고 있지만, 이 이론들은 전적으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한 이론에만 입각하는 태도를 배제하고 여러 이론을 두루 살펴 언어학의 기본

개념을 기술하려 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세번째 특징으로는, 언어에 대한 관심영역을 가능한 한 넓혀 인접학문들과의 관련성을 다양한 學際的 시각 속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책에는 언어와 관련을 맺는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이 폭넓게 개괄돼 있다.

“언어는 인류문화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값진 존재이며, 그런 까닭에 최근 모든 분야에서 언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먼저 언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규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언어의 구조와 역사적 변화에 대한 기본개념을 서술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언어와 문자, 언어와 관련을 맺는 여러 인접학문, 그리고 언어 연구의 발자취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 특히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언어습득이론, 언어와 인지과학, 뇌신경학 등의 과제를 가능한 폭넓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 인접과학 아우르는 學際的 관심 돋보여

구체적으로 이 책은 모두 6부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제1부 ‘인간과 언어’에서는 언어의 본질을 밝히면서 언어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 언어와 언어학의 기본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언어에 대한 고대인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해,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다른가, 언어는 어떤 특징과 기능을 갖는가를 해명하고, 언어학 발달사의 각 단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언어의 정의를 소개하는가 하면, 일반언어학과 개별언어학,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 등 언어학의 여러 범주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전문적인 부분이라 할 만한 제2부는 음운론·형태론·통사론·의미론의 4개 분야에 걸쳐 언어의 구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제3부 ‘언어의 역사’에서는 언어의 계통과 역사적 변화를 풍부한 예를 곁들여 서술하는 한편,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비교와 再構의 방법 또한 소개한다.

제4부는 다른 개론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 책만의 주요한 특징을 보이는 부분으로 세계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인구어족·햄-셈어족·우랄어족·알타이어족·중국-티베트어족·말라이-폴리네시아어족·드라비다어족 등

“우선 읽어서 알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했습니다. 개론서나 통사야말로 학자의 마지막 저술이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공부한 언어학지식들은 정연한 체계와 학문적 엄밀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반인들의 이해를 쉽게 이끄는 데 애를 썼습니다.”



김방한교수.

언어의 계통적 분류와 함께 유형적 분류의 예가 소개돼 있다. 뒷부분에는 주로 문자체계의 발달이 중점적으로 다루지고 있는데, 특히 김교수의 특유의 분야라 할 수 있는 거란문자·몽골문자·여진문자·만주문자 및 그것들이 한글과 맺고 있는 관계 등 동북아시아 諸문자에 대한 해박한 정보들이 제공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제5부 ‘언어학과 인접과학’에서는 언어와 관련을 맺는 여러 인접학문들을 가급적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언어학적 해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6부 ‘언어학의 발자취’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언어연구에서 20세기의 변형생성문법에 이르는 언어학연구 畧史를 개괄, 앞으로의 바람직한 언어학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김교수는, 설명을 위한 언어자료로 가급적 한국어를 많이 동원하되, 다양한 이해를 위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예도 풍부하게 제시했다.

## 말의 본질 캐는 일에 바친 한평생

1925년 목포생인 김교수가 언어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해방직후 서울대 영문과를 거쳐 다시 언어학과로 진학하면서부터. 당시만 해도 언어학은 전혀 낯선 학문이었어서 학과가 설치된 곳도 서울대 하나뿐이었고 학생수도 5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모지나 다

름없던 국내 언어학계에 씨를 뿌리고 받을 간이가 바로 김교수로, 스스로 “가장 독창적이며 의미있는 연구성과”로 꼽는 「한국어의 계통」을 비롯한 그의 저작들은 발간될 때마다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들였다.

그런 김교수가 이번에 펴낸 이 책 「언어학의 이해」는 지난 여름의 「어원론」에 이은, 정년퇴임 이후 두번째 저술이 된다. 정년퇴임 이후에 오히려 더 왕성한 집필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언어학의 이해」를 상재한 얼마후 폐수술을 해 요즈음은 방문객들을 만나는 것도 삼가며 서울 장외동 자택에서 정양중이다. “아마도 반년 가량은 수술로 지친 몸을 추스리는 데 전념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그의 말인데, 그러나 그 반년이 지난 다음 본격적으로 착수할 집필계획을 벌써부터 세우고 있다.

“현대언어학의 대표적 이론가로 언어학 뿐 아니라 사회학 등 현대의 모든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쉬르 이론의 발달사를 책으로 써볼 생각입니다. 사실 소쉬르처럼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소쉬르만큼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론가도 드물다. 우리나라에도 소쉬르 저술의 번역본이 이제 겨우 두 종류가 나왔을 뿐이니까요.”

전례없이 풍성한 말의 잔치를 보여주었던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막 끝난 3월말의 어느날, 말의 본질과 비밀을 캐는 일에 온평생을 바쳐 온 노언어학자가 다짐하듯 하는 말이다.

—강철주 기자